2018년 2월 14호

글쓰기를 시작하기 위한 노트

윤태영,
<윤태영의 글쓰기 노트>(2014) 中

차 의과학대학교 학습지원센터

[34] 최대한 맞춤법을 지켜라 글의 신뢰를 위한 노력이다

최소한 한글프로그램에서 빨간 줄이 그어지는
낱말이나 문법만큼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
시간이 들더라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좋다.
맞춤법을 정확히 해야 하는 이유는 국어사랑에 있다.

맞춤법!
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투자이다

[35] 감정이입을 해야 진정한 고스트 라이터

"이건 자네 글이지, 내 글이 아닐세."
민주당 상임고문 노무현은 A4용지 두 장으로 출력된 원고를 덮었다. 첫 대목의 서너 줄만 읽었을 뿐이었다.

자신의 글이 아닌 다른 사람의 글을 써야 하는 사람이 있다.
고스트라이터, 일명 '대필작가'라고도 한다.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와
표현들을 찾아야 한다.
글의 모든 내용을 그 사람이 살아온 길,
그리고 철학과 일치시켜야 한다

[36] 부족한 관찰력, 인터넷 검색으로 보완하라

관찰력은 글을 잘 쓰게 해주는 바탕이 된다.
보고 들은 게 많아야 쓸게 많은 법이다.

수첩을 들고 열심히 메모하지만 놓치는 대목이 꼭 있다.
다행히 시대는 잘 타고 났다.
부족한 관찰력이 단점인 시대는 지났기 때문이다.

외우는 능력보다는 호기심을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세상이 열리고 있다.
넘치는 호기심으로 세상을 검색하자

[37] 쉼표는 없다고 생각하자 쉬지 말고 뛰자

내가 좋아하는 생머리의 그녀
내가 좋아하는, 생머리의 그녀

아리송한, 애매한 표현들이 되풀이되었다.
표현들이 애매하고 아리송했다.

쉼표는 그다지 권장할 만한 문장부호가 아니다.
중간에 탁탁 걸리는 느낌을 준다.
쉼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글을 쓰자

[38]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주어와 서술어?

나는 그가 술이 떨어지자 울먹이는 것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술이 떨어졌다. 그가 울먹였다. 나는 가슴이 아팠다.

서늘한 한기가 오랜만에 갑옷을 벗은 몸에 느껴졌다.
오랜만에 갑옷을 벗은 몸에 서늘한 한기가 느껴졌다.

주어와 서술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에게 혼란을 준다.
주어와 서술어의 위치는 의미를 쉽게
전달하고자 한다면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39] 번역의 품질은 외국어 실력보다 국어 실력이다

I know a boy who can solve the problem which is very difficult.

나는 매우 어려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소년을 알고 있다.
매우 어려운 문제다. 그걸 풀 소년을 내가 알고 있다.

번역을 하면 어휘가 풍부해진다.
사전적 의미의 낱말들로는
읽기 쉬운 번역문을 만들기 어렵다